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및 지원 정책

■ 청년¹⁾ 층은 '이케아세대', '노오력', 'N포 세대'로 그들의 답답한 현실을 토로하고 있음. 한 발 더 나아가 '연어족', '빨대족', '자라족'이란 신조어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부모세대에게 기댈 수 밖에 없는 어두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임.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 우리나라 고용정책에서의 문제점은 장기간에 걸쳐 고용률이 60% 수준에서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 남성 고용률에 비해 여성 고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다는 점임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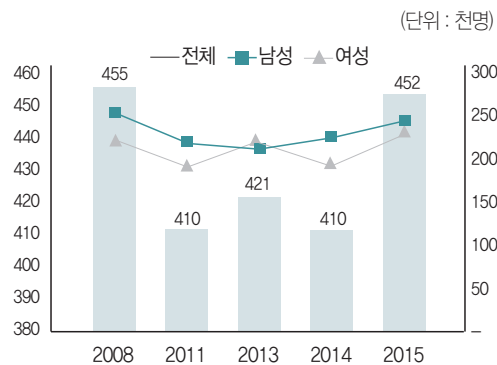
■ 청년여성의 열악한 취업현황

• 청년여성 취업자 수는 2010년 2,126천 명에서 계속 감소해 2013년 2,001천명이었고 이후 소폭 증가해 2014년 2,033천명이었음. 청년남성은 2010년 1,901천명에서 계속 감소해 2014년 1,816천명으로 가장 낮았음. 취업자 수는 감소 추세이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20대 여성은 62.4~63.8%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했지만 상승 추세에 있으며, 남성은 가장 높았던 2004년(69.8%) 이후 2014년까지 감소함.

– 'OECD 직업역량 전망 2015'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 기준 핵심생산인구(30~54세) 실업률 대비 청년(16~29세) 실업률이 3.5배로 22개 OECD 조사국 가운데 가장 높았음(OECD 평균은 2.20배). 이 비율이 3배를 넘는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스웨덴(3.16), 노르웨이(3.05), 이탈리아(3.00) 등 4개국에 불과했으며 독일(1.58)이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음³⁾.

■ 청년여성은 덜 괜찮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집중됨

- 청년여성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년남성은 청년여성보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이러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구직활동을 지속하거나 아예 취업준비만을 하는 경우가 많았음⁴⁾.
- 2016년 3월 기준 청년고용률(15~29세, 41.0%)은 중장년(30~64세) 고용률(73.6%)의 절반 수준이며 청년실업률(11.8%)은 중장년 실업률(2.9%)의 3배 수준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통계청, 2016)⁵⁾.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 모두에서 OECD최하위 권에 머물고 있으며 청년층의 노동활동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⁶⁾.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1] 청년층 취업준비자 추이

- 청년층은 일자리 선택시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근로환경(근로시간, 근로환경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⁷⁾.

1) 청년의 연령에 대한 기준도 학문적, 법률적, 정책적, 혹은 국제기구 별 관점에 따라 다양청년에 대한 많은 국가별 통계와 지표들이 국제연합 세계청소년실천프로그램,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의 연령규정에 따라 청년기를 15~24세로 규정(World Bank, 2007)함. 청년의 법률적 개념은 법에 따라 상이함. 본 원고에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정의에 따라 15세~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2) 강유덕(2016), '저성장 시대의 고용확대정책: 유럽 주요국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서울신문 2015년 5월 28일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528003005>) 4) 현대경제연구원(2016), 「VIP리포트」, 통권 658호

5) 국회예산정책처(2016), '경제동향 & 이슈', 통권 42호



성별 · 연령별로 살펴본 취업자 추이

- 청년층의 취업자 추이를 성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4세 남성 취업자는 전년 대비 3만 명 증가, 20~24세 여성 취업자는 전년 대비 3만 2천명 증가함. 20대 초반 남 · 녀 모두 2015년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25~29세 남성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만 명 증가로 전환, 여성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4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5~29세 여성 취업자의 경우 고용 감소폭은 2012년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최근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줌.

〈표 1〉 청년층의 성 · 연령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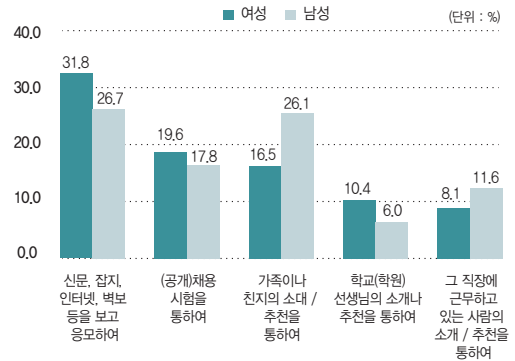
		2010년	2013년	2014년	2015년
남성	15~19세	81	99	111	110
	20~24세	433	518	553	582
	25~29세	1,331	1,197	1,183	1,193
	전체	1,845	1,813	1,846	1,885
여성	15~19세	123	125	134	135
	20~24세	738	761	807	839
	25~29세	1,208	1,094	1,083	1,079
	전체	2,069	1,980	2,023	2,053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6), '최근 청년 고용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고용동향브리프 제9권 3호

성별 청년층 졸업 · 종퇴자의 취업 경로

- 연령별,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정규직은 남성이 많았고, 비정규직은 20대 이상의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많았음(2016년 상반기 기준)⁶⁾.
- '취업 경로'는 '신문, 잡지, 인터넷, 벽보 등을 보고 응모하여'가 여성(31.5%), 남성(26.1%)로 남녀 모두에게 가장 높았음. 반면 2순위의 경우 여성은 '(공개)채용시험을 통하여'(19.6%), 남성은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 / 추천을 통하여'(26.1%)가 높게 나타나 성별차이가 확인됨. 특히 남성의 개인적인 네트워크 활용이 두드러짐.



〈그림 2〉 성별 청년층 졸업 · 종퇴자의 취업 경로

출처: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청년층)」

직종별로 살펴본 20대 취업자 현황

- 직종별로 살펴보면 단순노무직, 판매 종사자, 생산직을 중심으로 증가해 고용상황의 개선으로 보기에 다소 어려움. 특히 성별로는 20대 초반 남성은 단순노무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음. 20대 후반 남성은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등에서 고용이 늘어났고, 20대 후반 여성은 서비스 종사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나 고용의 질에선 매우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2〉 20대 성 · 연령 · 직업별 취업자 증감(2015년)

(단위: 천명)

	20~24세			25~29세			20대 합계
	여	남	전체	여	남	전체	
관리자	-2	0	-1	1	-2	-1	-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9	6	25	-9	-7	-17	8
사무종사자	-17	10	-7	4	1	5	-3
서비스 종사자	-4	5	1	10	-1	9	9
판매 종사자	11	5	16	-4	10	6	22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3	0	-3	1	-5	-3	-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	-2	0	0	1	0	1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6	-6	10	-4	11	6	16
단순노무 종사자	10	11	21	-2	3	1	23
전체	32	30	62	-4	10	6	68

*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임.

* 자료: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재구성

6) 한국고용정보원(2016), '청년층 취업준비자 현황과 특성', 고용동향브리프 제9권 3호

7) 한국고용정보원(2014), '대졸 청년층, 일자리 선택의 기준은 어떻게 변했는가?', 2016년 3월호 고용이슈(제9권 제2호)

8) 통계리포트(2016.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https://gsis.kwdi.re.kr/gsis/kr/board/BoardDetail.html>)

9) 한국노동연구원(2014), KLI 고용 · 노동 리포트, 통권53호

청년여성 일자리지원 정책

☞ 정부 출범 이후 청년세대의 고용·취업 지원을 위해 총 8차례의 청년고용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청년고용 문제 해결 및 개선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어 청년여성 중심의 지원정책은 찾기 어려움.

- 올 2월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정부 주재 회에서는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사업에의 집중이 논의된 바 있으며, 지난 4월 27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이 발표됨.

–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 및 일자리정보제공, 원스톱 맞춤형 취업지원 등을 위한 대책이 강조됨.

☞ 그간 발표된 청년고용 대책은 주로 인턴제를 중심으로 한 경과적 일자리 정책,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 및 임시 일자리 채용 확대정책, 민간부문 채용 유인 제고정책, 직업훈련 정책, 수요와 공급을 중개하는 고용서비스 정책 등으로 구성됨.

- 비경제활동인구 중 재학·학업, 취업준비를 위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괜찮은 일자리로의 유입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것이며, 여성의 고용은 증가되었으나 저임금근로자의 고용규모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의 질이 나아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움⁹⁾.

- 2016년 청년여성경력개발지원사업 선정 결과

지역	2016년 선정 대학	
부산	2	동서대학교, 동의대학교
대구	1	경북대학교
광주	1	광주대학교
대전	1	충남대학교
경기	1	아주대학교
강원	1	강릉원주대학교
충북	1	충북대학교
전북	1	원광대학교
전남	1	순천대학교
경북	1	영남대학교
경남	1	창원대학교
제주	1	제주대학교

해외에서의 청년일자리 정책

☞ 청년층이 경험하는 경제활동 관련부분의 어려움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님. 홍콩, 일본 등의 아시아 지역은 물론 '1,000유로 세대'로 불리는 유럽의 청년들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상황임.

- 2013년 말 OECD 국가 중 9개국의 청년 실업률은 25%를 넘었으며, 2014년 청년실업률은 2007년에 비해 1/3 이상 증가한 상황임. 2015년 유로시티 사회포럼(Social Affairs Forum, EURO CITIES)에서도 3개 우선 순위의 하나로 청년고용 및 포용을 선택함¹⁰⁾.

☞ 유럽의 청년보장 제도

- 청년 고용률이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이며 실업률은 일본, 노르웨이, 독일, 스위스 등이 낮게 나타남. 그러나 실업률과 고용률만으로 청년층의 실제 고용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도제식 기술교육을 통해 학업과 직업훈련을 병행하도록 하며, 덴마크와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와 직접적 고용창출 등을 통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국회예산정책처, 2016).
- EU의 주요 고용정책에는 고용패키지(Employment Package), 직업교육훈련(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청년고용 제고정책, 고령화 대응정책 등이 있음¹¹⁾. 유럽의 청년고용 정책은 '니트(NEET)족'¹²⁾에 주목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니트족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음.
- 우리나라 니트족의 규모는 2013년 기준 18.0%로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게 나타남. 2015년 전체 청년 인구의 16.5%¹³⁾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청년 여성 니트 규모의 증가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OECD 국가 중 우리보다 니트족 규모가 큰 나라는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 칠레, 슬로바키아 정도임.
- 일본은 니트족 규모가 6.6%로 가장 적었고,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도 10% 이하로 적은 수준임.

10) 배호정(2016), '청년실업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유럽의 최근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세계와도시, 13호

11) 강유덕(2016), '저성장 시대의 고용확대정책 : 유럽 주요국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 청년 니트(NEET :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 고용, 교육, 훈련 가운데 어떤 것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청년을 말함.

13) 29세 미만의 청년층 인구 중 실업자를 포함하고, 지난 1주일 동안 주된 활동으로 정규 교육기관,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에 통학중인 경우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로 정의함(김기현, 2016).

- 유럽에서는 단순히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것을 넘어서서 '청년 니트(NEET)'의 증가를 막기 위해 2012년 12월 이후 EU 회원국 전체에 '유럽 청년보장 프로그램'의 실행을 제안, 회원국들은 자국의 25세 미만 모든 청년들에게 실직 또는 정규교육 종료 시점으로부터 보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EU의 청년보장정책(YG: Youth Guarantee)¹⁴⁾은 청년층 경제활동상태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함. 4개월 이내에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재 합류해 실직을 막고, 노동시장에서의 장기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 각국에서 각 나라별 실정에 맞게 시행중임.
- 1984년 스웨덴이 청년보장을 처음으로 도입. 1950년대 이후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여성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많아짐.
- YE(Youth employment initiative)는 YG제도를 지원하는 주요 EU재정 자원의 하나로 2014~2020년까지 64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 예산이 배정된 국가의 경우 청년들에게 재정이 지원되기도 함. 청년보장 프로그램은 주로 고용교육·훈련, 학교 중퇴 예방과 치료교육, 고용 중개, 직접고용 창출, 고용 인센티브, 스타트업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됨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3).

☞ 세계 각국에서의 도시별 청년 경제활동 지원 정책은 다양하나 주로 청년여성보다는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함.

- 프랑스 파리는 2018년부터 경제활동 중인 학생들에게도 청년층이 신청할 수 있는 사회수당인 '활동연대수당'을 확대 지급해 학업 및 재취업 기간에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고자 함¹⁵⁾.
- 뉴욕시에서는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과 경제활동 제공 연계를 제공함. 폴란드 브로츠와프(Wroclaw)시에서도 산학연 협동 허브 등의 설치를 통해 교육과 경제활동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¹⁶⁾.
- 영국 요크셔의 리즈도시권(Leeds City Region)에서는 청년고용 창출에 초점을 맞춘 성장 친화적 프로그램인 '리즈 도시권 기업파트너십(LEP)'을 시행함. LEP는 영국정부가 2011년 조직한 지역 당국, 기업 및 관계자 간 네트워크임¹⁷⁾.

- 미국정부는 여성의 경제세력화를 위해 WANTO(Women in Nontraditional Occupations and Apprenticeships Act)에 기반해 성별 임금, 직업지위, 승진 등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¹⁸⁾.

- 연방정부 노동국(US Department of Labor) 내의 여성부(Women's Bureau)는 현재 4개의 주요이슈를 중심으로 법과 세부 실행계획을 수행하고 있음. 주요이슈는 동일임금, 생애주기를 고려한 유연한 직업환경 개선, 비전통적인 직종 및 고소득 직업에서의 여성 진출 확대, 군재대 여성에 대한 지원임. 이러한 지원은 WANTO Act에 기초해 실시함.
- 캐나다는 직업훈련의 상당부분을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에서 지원함. 현재 저임금, 저숙련 직종에서 일하는 여성도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 제공함¹⁹⁾.
- 무료로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것의 의의는 여성들이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통해 가정경제의 주체로 자리 잡도록 공공(public)이 도와준다는 것임. 직업 훈련분야는 대체로 비전통분야(non-traditional occupation)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

☞ 최근의 청년고용 관련 정책이 '청년'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구조적 요인에서 청년 실업 등의 원인을 찾고 있음에 주목 할 필요가 있음. 또 청년여성보다는 '경력단절여성' 고용지원에 좀더 무게가 실리고 있어 향후 20대의 청년여성, 여성 니트족 등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경제활동 지원에서 특히 여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기에 여성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곧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청년 여성은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고용 관계,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을 경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조건에 노출되기 쉬워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유인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의 마련이 요구됨.

〈집필 : 이선민 부연구위원〉

14) '청년고용 보장(Youth Guarantee)'이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혹은 실직한 청년들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함. 25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최대 4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제 교육 또는 실무 수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제 교육 또는 실무 수습의 기회를 제공함.

15), 16)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https://www.si.re.kr/trends>; 383호)

17) 배효정(2016), '청년실업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유럽의 최근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세계와도시, 13호

18), 19) 오은진 외(2015), 청년여성의 지속적 경력지원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및 사업 모형 구축 연구, 여성가족부